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8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1년 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산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두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출연의 필요성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현재 본부(2부문 2실 5부 2센터)와 지점(4지역본부 25지점 8센터)에 임원 2명, 정규직 470명, 기간제 296명을 포함해 766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

####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력 현황 >

(2021.8.31 기준)

구 분	정 원 내			정 원 외		합 계
	소 계	임 원	정규직	소 계	기간제 근로자	
현 원(명)	472	2	470	296	296	766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단은 ▶고유사업으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창업·경영 컨설팅, 기본재산 관리를, ▶대행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을 ▶수탁사업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다. 출연의 적정성 검토

- 최근 5년간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출연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출연금이 2,302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음.

#### <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추정)	2022년(안)
보증공급액	12,368	13,372	18,780	51,249	50,000	35,000
보증잔액 (A)	37,030	37,971	42,377	79,313	99,313	96,313
연간 출연금 조성액	381	397	633	2,302	1,550	1,230
서울시	65	48	66	810	주(2)569	<b>630</b>
정 부	-	-	-	102	41	0
자치구	6	4	3	146	300	50
금융회사법정출연	55	43	41	49	80	80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255	302	523	1,195	560	470
당기순손실	346	228	397	926	1,338	<b>1,497</b>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8	2	-	-	-
기본재산(B) 주(1)	5,973	6,150	6,388	7,764	7,976	7,709
운용배수=(A/B)	6.20	6.17	6.63	10.22	12.45	<b>12.49</b>

주(1) 기본재산 = 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차액분)

(2) 2021년 서울시 출연금은 국비와 개인보증, 4無안심금융 보증료 지원을 제외한 수치임.

- 2021년 본예산에서는 법적 보증한도(15배)<sup>2)</sup> 이내의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118억 6천만원<sup>3)</sup>을 출연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25억 3천만원<sup>4)</sup>을 증액하였음.

<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A)	1회 추경예산(B)	증감(B-A)
총 계	(x-) 11,860	(x9,330) 124,390	(x9,330) 112,530
재단출연금	(x-) 11,860	(x1,330) 92,390	(x1,330) 80,530
재단출연금 (브리지보증)	(x-) -	(x8,000) 32,000	(x8,000) 32,000

- 2022년 출연금은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12.5배)<sup>5)</sup> 유지를 위해 신용보증재원 630억원을 편성할 계획임.
-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전체인구 대비 35%<sup>6)</sup>를 넘어서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적모임 금지, 집합금지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 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신용보증재원 70억원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2억 6천만원 ▶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 26억원

4) ▶ 신용보증재원 463.3억원(국비13.3억원 포함) ▶ 브리지보증 320억원(국비80억원 포함) ▶ 4無안심금융 보증료 지원 342억원

5) BIS(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역산하면 운용배수는 최대 12.5배로 산출됨.

6) 전체 인구대비 백신 접종률 - 접종완료 35.8%, 1차접종 59.9% (2021.09.07. 기준)

-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소 회복될 것이나, 소비·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실질적인 회복은 더딘 채 산업간·계층간·자산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내년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인해 보증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출연금 편성이 요구될 수 있음.
- 다만, 출연 동의안의 내용과 실제 예산편성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회동의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누락하지 않고 동의안에 계상해야 할 것임.
  - 2020년 출연 동의안에서는 763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예산편성은 118억 6천만원에 그쳤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폭 증액(1,125억 2천만원)하였음.

-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2019년 신설된 후 매년 출연금 중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편성<sup>7)</sup>하고 있으나 동의안에는 이를 누락하고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태훈	02-2180-8063

---

7) 2019년 - 8억 2천만원, 2020년 - 20억 8천만원, 2021년 22억 6천만원